

# 봄 여행 관광객 맞이 '분주'

### 임실군, 임실치즈테마파크·옥정호·성수산 등 주요관광지 점검

임실군이 문화관광체육부가 주관하는 봄 여행 주간을 맞아 전국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해지고 있다.

군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옥정호와 성수산, 사선대, 오수의건강원 등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전반적인 점검에 한창이다.



임실군이 문화관광체육부가 주관하는 봄 여행 주간을 맞아 전국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해지고 있다.

23일 심 민 군수는 간부회의를 갖고 "임실군의 대표적인 치즈체험이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만큼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치즈테마파크를 비롯해 꽃이 만발한 옥정호 주변 공원과 성수산 등을 찾는 방문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군은 '꽃'으로 대표되는 지역이 기도 하다. 거리 곳곳에서 계절꽃을 식재해 특색있는 경관관리를 잘하는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심 군수는 "뛰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관광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인 만큼 봄맞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하기 좋은 임실 이미지를 만들어 향후 해마다 3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임실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고등학생 해외 역사탐방 지원

### 순창고·제일고·동계고

순창지역 고등학생들이 해외 견문을 넓히고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순창지역 고등학생들이 해외 견문을 넓히고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군은 올해부터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역사탐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확보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과 김종섭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모두의 동의와 협조로 이뤄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학생들에게 무한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집행부와 의회간 협력으로 해외테마를 진행한 데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높다.

우리나라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안목을 넓히고 꿈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순창고, 순창제일고, 동계고 등 관내 3개 고등학교 학생 2학년 252명을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11월 까지 학교별로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역사박물관, 귀부덤, 도시사 대학교, 오토루 마을 일대를 방문하게 된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쌓고 백제문화와 일제강점기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권재봉 행정과장은 "지역 학생들이 이번 해외역사탐방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과 화창시절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의 소리, 말천방 들노래' 발간

### 학술적 가치·보존 대책 구성

임실군이 '임실의 소리, 말천방 들노래' 책자를 발간했다.

이야기를 후손들의 증언으로 설명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말천방들노래는 전체 3장, 216쪽으로 구성됐으며, 말뚝 터진 두월리 뒷골 사람들과 두월리의 어제와 오늘, 말천방 들노래의 학술적 가치와 보존 대책으로 구성됐다.

또 두월리의 대다수 주민들이 경주이씨와 연안김씨라는 집에 착안하여 집성촌이 되기까지의 연원을 두 문중 자료를 토대로 기술했다.

이번 발간사업을 맡았던 김성식 전북대학교 민속학박사는 두월리 마을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수록했다.

두월리에서 불려지는 말천방 들노래는 전체 8곡으로 구성됐다. 문열가와 물품기노래, 모심기노래, 방아타령, 연계타령, 사랑가, 어취싸호, 경기산타령 등 주로 천수담이었던 두월리의 농사 민요라고 할 수 있다.

책의 첫장인 '말뚝 터진 두월리 뒷골 사람들'에서는 전국민속예술행연대회에 출전했다가 좌절하고 돌아와야만 했던 이야기와 두월리의 한국전쟁 경험, 가난에서 두월리를 떠날 수 없었던 그때 그 시절 등 32개의 소주제라 나누어 특유의 재치와 토속적 언어를 구사하여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임실은 맛으로 기억되는 임실치즈와 소리로 기억하는 말천방 들노래, 오감으로 즐기는 임실문화를 만들어 문화부흥을 견인하겠다"며 "앞으로 임실의 소리 말천방 들노래를 전북의 무형문화로서 말천방 들노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장 '두월리의 어제와 오늘'에서는 두월리에 전하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활동사진을 토대로 사진 속에 나타난 두월리 명인명칭들의

자세한 문이는 임실군청 문화관광치즈과(063-640-2315)로 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매 아리

### 남원시, 문화가 있는 날 festival

남원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와 지역변화를 위해 조성된 문화예술의 거리 예가람길에서 21일(매일 셋째주 토) '문화예술 상설공연'과 27일(매일 마지막주 금) '문화가 있는 날 festival' 행사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남원시에서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 함께 참여한 구도심권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 2회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행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상가 및 지역주민,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회원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스스로 만들어가는 상시 축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구도심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매일 셋째주 토요일 '문화예술 상설공연'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원들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매일 마지막주 금요일 '문화가 있는 날 festival' 행사는 길거리 공연, 허브 북주머니 체험, 머그컵·방향제 만들기, 한지 공예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지역 초등학교 정구대회 우승

순창지역 초등학교 정구선수들이 제11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초등학교 정구대회에서 단체전 우승 등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정구명문 '순창'의 이름을 알리는데 한몫 토포했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된 충청북도 옥천군 실내정구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순창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은 누부시다. 우선 순창초등학교팀이 단체전 우승을 거머 쥘 것이며 같은 학교 개인복식팀이 3위에 입상했다. 순창중앙초등학교팀은 단체전 준우승과 개인복식 1위, 2위, 3위를 차지하여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가능성을 키웠다.

순창지역 초등학교 정구팀은 이번 대회 이외에도 '제59회 전국유소년정구대회' 단체전 동반우승과 제39회 회장배 전국정구대회에서 단체전 우승과 준우승을 거두고, 이번 대회에서도 단체전 우승, 준우승에 입상해 올해 열린 3개 대회 전관왕을 차지했다.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좋은 성적이 이어지면서 '2018년도 꿈나무 선수 발탁'도 예상되고 있다.

순창군 정구 관계자는 5월에 열리는 "순창지역 초등학교 꿈나무들이 잇따른 패거로 정구명문 순창의 이름을 알리고 있다"면서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군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전북투어패스 온·오프라인 1+1구매 이벤트

남원시는 전북14개 시·군의 관광지원을 연계한 전북투어패스 인지도 확산 홍보를 위해 전북투어패스 자유이용시설로 되어 있는 광한투어에서 전라북도과 함께 투어패스 홍보 및 온·오프라인 1+1구매(하나사면 하나더) 이벤트를 벌였다고 밝혔다.

특히 남원시는 이번 1+1구매 이벤트를 추진해 전북투어패스 알리기와 6,000여장을 판매하는 눈에 띄는 실적을 거두었다.

지난 21일 전라북도와 남원시가 함께 추진한 이번 행사는 남원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북투어패스카드를 이용한 썬 먹고 알 먹는 여행 꿀팁, 투어패스 판매와 제휴혜택 등을 홍보하는 마케팅의 장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그중 남원시 대신면에 위치한 드래곤레이크CC는 골프패키지 상품에 전북투어패스와 연계한 남원여행특별상품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남원시 관광과장은 "앞으로도 전북투어패스 가맹점 관리와 신규 등록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내실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원브랜드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